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제시문 (가),(나),(다)는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한다. 제시문(가)는 다수의 문화수준에 의해 따라 문화전파가 수용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시문(나)에서는 다수가 걸작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전승된다고 말한다. 또한 제시문(다)에서는 다수의 성찰과 이들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제시문(가),(나),(다)는 모두 사회의 진보에 있어서 다수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 속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수의 존재와 역할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가),(나),(다)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제시문 (가)에서 다수는 사회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제시문(나)와 (다)에서는 다수가 사회혁신의 주체가 된다고 말한다. 제시문 (가)는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한 대중들은 다른 사람의 사상을 곧바로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즉 어떠한 동요상태 없이 타인의 사상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제시문 (나)와(다)에서는 사회변화에 있어서 다수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제시문(나)에서는 걸작이 아닌 것을 통해 예술적 전승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말은 사회의 다수가 걸작을 모방하며, 즉 모독하며 존경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존경이 포함단 비난을 통하여 예술이 전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다)에서는 다수의 창작자들의 뇌 사이의 연대를 통하여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사회적 진보는 다수들 사이에서 논리적 투쟁과 결합을 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제시문(가),(나)와 (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제시문 (가)는 문화수준이 낮은 대중들은 절대적인 개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또한 제시문 (나)에서도 사회 속 다수는 걸작을 모방하는 아류를 통하여 문화를 전승할 뿐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시문 (다)는 다수들이 정교화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발전을 이루어낸다고 말한다. 이는 다수가 사회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